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22

2020.3.22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
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 33:6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함즐함을 특집 “생각하여 보라”
- 3면 교회 소식
- 4-5면 유유청청 소식
- 6면 가정예배 인터뷰
- 7면 목회칼럼
- 8면 광고, 알립니다

교회일정

- 3/22(주일) 사순절4
- 3/29(주일) 사순절5
- 4/5(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 4/12(주일) 부활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비었으나 가득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 3월 8일, 교회 정문은 닫혀있었고, 마스크를 쓴 목회자들이 큐티 책을 올려놓은 작은 탁자 옆에 서서 출입자를 통제했다. 로비는 닫혀 있었으며 출입은 공원 쪽 중간 출입문 하나로만 가능했다. 그날 강단 위의 예배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으나 회중석에는 당회원과 예배 필수 인원 스무 명 안팎이 앉아있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가득했다.

그것은 기묘한 느낌이었다. <미디어의 이해>를 쓴 마셜 매클루언은 물고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는 물이라고 말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영역을 인식하게 하는 반환경적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와야 비로소 물이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로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이 미쳤다.

사순절은 이마에 재를 바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절기이다. 그 사순절 텅 빈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동안 성전을 장터나 사교장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벽돌 쌓여진 것을 교회로 보았던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교회에 나왔던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알아봐 주는 ‘인정’이 그리워서 교회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와 같은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은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올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세상의 재난과 함께 하고, 재난 가운데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곁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텅 빈 회중석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보였고, 오직 솔리스트 7명으로 구성된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 너른 공간에 흘러 넘쳤다. 마음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 관련기사 3면

함즐함을

함줄함울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코로나19가 제공한 뜻밖의 성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새삼 ‘교회’란 무엇인가, ‘안식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성찰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두 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소비,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말씀, 헌금, 평화, 가정, 기도, 거룩, 교회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당연히,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이번 호에는 책 읽기와 ‘정서적 안정’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울

주님의 서재 ② 예배를 생각하다

예배와 안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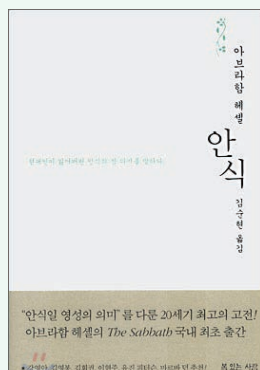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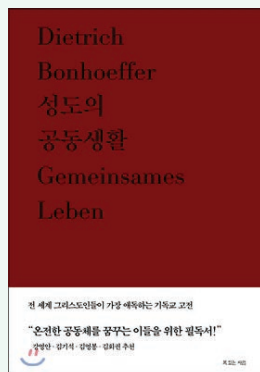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예배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성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문이 닫히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반면 집에서 교회로 이동하던 시간이 사라지자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틈이 생기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님의 서재”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무심코 넘어갔던 예배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도의 공동생활〉디트리히 본회퍼 지음, 복 있는 사람, 2016

독일 개신교 교회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장래가 촉망되던 신학자였지만, 히틀러에 맞서 저항하다가 39세에 교수형을 받았다.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본회퍼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재림이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동체의 출현(창조), 공동체의 파괴(타락), 공동체의 회복(구속), 공동체의 완성(재림)으로 해석한다고 말한다. 본회퍼는 교회를 공적인 공동체로서 보았던 것이다. 그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다루며 개인의 구원과 내세의 약속을 보장받는 것을 교회생활의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현대 성도들에게 교회는 사적인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맥도날드화’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처럼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는 사회가 될수록 인간은 사사화되어 공적인 영역에서 도피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공적인 공동체보다 사적인 장소가 되어 성도들 개개인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성도들이 서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은 현대 교회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 공동체로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안식〉아브라함 헤셀 지음, 복 있는 사람, 2007

20세기 가장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경건한 구도자이면서 행동주의자였다. 그가 1951년에 쓴 〈안식〉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가장 잘 정리한 책으로 평가받는다. 유진 피터슨이나 리처드 포스터 그리고 헨리 나우웬과 같은 유명한 학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책을 쓰면서 모두 헤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특별히 헤셀은 공간 중심적인 안식일의 이해에서 시간 중심적인 이해로 안식의 개념을 옮겼다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 묻지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에서 주일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현 상황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헤셀의 〈안식〉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책 읽어주는 부모 ② 정서적 안정

재난을 이겨내는 책 읽기

부모는 자녀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바라며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려고 배우고 읽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통해 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정서적 안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탄력성과 또 삶의 행복감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영유아기 때 부모와의 신체적, 정서적 접촉 등 많은 교감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부모들은 자녀의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고 싶지만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고르고 읽어주고, 아이가 책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하고, 부모는 들어주고 한두 가지 간단하지만 열린 질문을 던져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몰랐던 내용을 함께 알아가기도 하고 아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삶의 지혜도 제3자의 관점인 책을 통해 전달할 때 자녀들과 깊은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고3 시절에 친구들은 코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 때 자기는 좋아하는 책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코인 노래방이 나쁘고 책이 좋다는 비교적 판단이 아니라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책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안정감으로 노래방보다 책을 통해 진짜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의 발달과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현대인의 삶이 ‘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대신해서 보내주는 과제와 함께 독서 과제도 많아져서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독서는 참 좋은 재난 시 심리적 치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똥똥하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 이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

2월 23일부터 상황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

주님의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23일(주일)부터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다.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러 모임이나 행사 등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으며 교회에는 목회자와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예배의 온라인예배 전환은 2월 초부터 한국 사회에도 급속하게 전파된 코로나19의 여파에 의한 것이다. 2월 17일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가 대구의 한 종교집단에서 집단적으로 감염되면서 18일 이후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이 종교집단의 구성원들이 전국 각지로 코로나19를 확산하는 통로로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학교, 기업, 종교기관 등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공간이 중요한 방역의 대상으로 주목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각급 학교의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었고,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22일 밤 온라인예배 전격 결정

주님의교회 당회에서도 이 상황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발표와 사태의 전개에 관심을 기울였다. <함글함글> 421호가 마감되는 21일 저녁까지 고심하던 교회는 결국 공예배는 유지하기로 하고 관련 긴급 공지와 교회 내 방역을 위한 지침을 <함글함글> 7면과 8면에 수록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했다. 급기야 22일 저녁 9시, 종교행사와 대중집회의 자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후,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회와 학교, 학교와 교회 간의 교차 감염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22일 밤 11시가 넘는 시간, 김화수 담임목사는 23일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를 봉쇄하여 감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바로 전 교인에게 문자로 발송되었다. 다음날인 23일 8시 50분 임시당회가



지난 3월 8일(주일)에 있었던 3월 정기당회 모습. 목회자와 장로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다.

열렸고, 담임목사가 이런 전말을 당회원과 공유하여 사후 의결했다. 29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임시당회가 열려, 현장예배 중단 및 출입 통제에 관한 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교회 봉쇄 후 많은 것 바뀌어

사순절 첫 주,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교회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회자와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전화를 걸어 심방을 하고 있다. 주일예배가 실시간 중계로 전환되면서 찬양, 기도와 성경봉독,

헌금 등 예배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학교가 온라인예배로 바뀌면서 예배용 영상을 각각 별도로 주중에 제작하고 있으며 새벽 큐티와 온라인 양육클래스에 필요한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목회자의 업무 강도는 더 높아졌다.

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교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기도가 요청된다.

> 교회학교, 양육과정 등 주요 변동내용 4~5면

함글함글

교회소식 | 대외협력

대구 지역 교회에 마스크와 후원금 전달

주님의교회에서는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 마스크와 후원금을 보냈다. 원래 23일 교인들을 위해 준비했던 마스크 1,000매에, 개인후원으로

확보한 500매를 합쳐 1,500매를 마련했으며, 사무국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 2,000만 원과 함께 대구신광교회 및 교회 인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냈다. 대구신

광교회에서는 교우들에게 마스크를 나누고 후원금을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누어 전달했다. 주님의교회가 대구의 어려움을 함께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전해왔다. 함글함글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앙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1

‘성가대’는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이다

사회자(×), 인도자(○)

‘사회(司會)’라는 말은 회의나 의식을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일반 회의의 진행자를 의미한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닌 결혼예식이나 임직식 같은 인간 중심의 의식에서는 진행을 맡은 사람을 사회자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에서 사회자라는 명칭은 경건성의 결여를 느끼게 하므로 단순한 사회자(presider)의 개념을 넘어 ‘예배 인도자(worship leader)’로 부름이 타당하다. 인도(引導)의 사전적 의미는 “알려주며 이끄는 일”이므로 예배 인도라는 말을 회의에서의 사회와 구분지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교단 1998년 총회에서 통과된 표준예식서에는 모든 예배의 진행자는 ‘인도자(引導者)’로, 성례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는 ‘집례자’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성가대(×), 찬양대(○)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최근에 ‘성가대’로 많이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출판사들이 흑인영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곡집>이라 부르는 데서 보편화되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세이카다이(聖歌隊, 성가대)’가 그대로 직수입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가대’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가대’라는 용어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로 바꾸어 부름이 타당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교회학교 |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회학교 이렇게 준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2월 23일부터 온라인예배로 전환하면서, 교회학교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발소리가 끊긴 교회에는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영상 촬영과 편집을 위해 목회자와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땀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합니다.

함줄함줄

유아숲

유아 발달 특성에 맞춰 영상 제작

유아숲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주일에배가 시작되던 2월 23일부터 자체적인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성인예배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예배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7시경 유아숲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는 유튜브 영상예배와 더불어 '유아숲 만나만나'를 통해 가정연계 신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은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하여 많은 사전 준비를 합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스토리를 시청각 교구로 제작합니다. 이미지를 편집하여 오리고 붙이고 코팅하는 수작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설교문을 드라마틱하게 녹음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손경민, 임경순, 정구민 목사님께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설교의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으며 시청각 교구를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찬양, 예배, 마무리 부분은 매주 담당 교역자들이 돌아가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과 녹음된 음성파일은 기나긴 영상편집 과정을 거쳐 완전한 예배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촬영도, 편집도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았는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실수도 줄어든 거 같습니다. 지금은 현금시간, 생일파티 등 예배시간에 진행했던 순서들도 들어가다 보니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예배가 정상화되어 우리 친구들과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유아숲 교역자들은 우리 유아숲 친구들이 색다르게 경험하고 있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기쁨과 정성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미 전도사



영상 바로 가기



주님의교회 유아숲

유소년숲

매주 예배 영상 제작에 땀 흘려

유소년숲은 3월 15일 주일부터 자체적인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주일 오전 9시 전에 유소년숲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각 부서에서 <가정공과> 자료와 함께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유소년숲은 2월 23일부터 시작된 주님의교회 인터넷 실황 주일예배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교육 일정은 놓치지 않고 소화하기 위해, 보충물로 매주 총회 교육과정에 따른 <가정공과> 자료와 영상물, 그리고 유소년숲에서 제작한 <사순절 말씀 묵상>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예배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소년숲 전 부서 교역자가 참여하여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유소년숲 영상 예배는 유소년숲 전 부서 아이들이 이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연출을 지양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유소년숲 특성상 아이들의 연령 폭이 넓기 때문에, 연령별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초등부(3,4학년)와 소년부(5,6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현장 예배와 마찬가지로 전 과정에 혼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년부(1,2학년)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배 영상의 약 3분의 2 분량에 해당하는 율동이 있는 찬양과 "센싱더 스토리"를 응용한 성경 이야기 순서까지는 아이 혼자서도 무리 없이 참여하여 이해할 수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관한 심화 설교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들으시고 공과 교재를 할 때 말씀 해석의 방향성을 참조하셔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경민 목사



영상 바로 가기



주님의교회 유소년숲



주제 말씀영상

청소년숲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가 작년 12월에 터진 후, 우리의 평범했던 모든 일상은 지금까지도 이곳저곳이 펄펄 터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였던 '주님의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온 감염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는 사역자들인 우리가 대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예배의 장소를 잠시 닫고 인터넷을 켜는 것뿐이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어와나트렉, 청사원, 순식탁 등 각 부서를 담당하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이제 순식탁 책상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아이들로 하여금, 대예배 실황을 가정 안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동시에 주일예배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찬양과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저는 함께 두 눈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두 귀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한 것은 "오직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한 명, 한 명이 예배 순서의 각 역할을 맡아서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온라인 속 예배의 공간을 창조해 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져 있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공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렸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의교회 청소년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배 후에,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문자와 카톡을 통해 보내 주신 피드백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ですよ. 이러한 확신이 주일 하루의 예배로 끝맺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믿음이 되어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모양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모인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 오늘도 삶으로 예배합니다.

백양선 전도사



영상 바로 가기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애플 모두 가능)
"VIP Ministry"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알립니다

유유청청 일정이 바뀝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유유청청에서 계획되었던 많은 일정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정은 각 부서광고 혹은 주보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

아기정원

아기정원 25기는 '출애굽, 사랑의 예수님, 계절' 주제로 2020년 3월 12일(목)~5월 30일(토)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봄 학기 일정을 취소하고 가을학기 동일한 주제로 9월 중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아영성나무 - 센싱더스토리(Sensing TheStory)

제4기 유아영성나무는 '노아 이야기 & 다윗 이야기' 주제로 2020년 3월 18(수)~5월 06일(수)까지 8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10월 초에 제4기 유아영성나무 개강 예정입니다.

유소년숲

어린이제자훈련(센싱더스토리)

믿음의 가정, 함께 세워가는 어린이라는 표어 아래 '구약 이야기'라는 주제로 3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2학기에 '구약 이야기'로 개강합니다.

어와나

어와나 커비단(5~6세), 불티단(7~9세), 티앤티(10~13세), 트렉(중등)

2월중 각 부서별로 진행하려던 학부모설명회를 자료배부로 대신하고 3월 7일로 계획했던 오프닝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학교의 개학이 4월로 다시 한번 연기됨에 따라 학교 개학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숲

정기모임 휴강 및 대체

1. 청년예배(매 주일, 오후 1:30, 중예배실) → 유튜브 '주님의교회 청년부' 실시간 스트리밍 주일예배 대체
2. 주일 겨자씨 모임 → 실시간 예배 후 겨자씨 온라인 모임(카카오톡 오픈 겨자씨, 스카이프 화상채팅 등) 대체
3. 비전샘(매 주일, 8:20, 다목적관 4층) - 재수생 예배 휴강
4. 토요리더모임(매주 토요일 10:30, 4층 대회의실) → 매주 토요일 라이브톡 모임으로 대체
5. 전체임원회의(매월 첫째주 토요일, 12:30, 4층 대회의실) - 청년부 리더십 정기모임 휴강
6. 청년금요집회 '밤에 뜨는 별' 취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1층 소예배실)

양육과 훈련 연기 및 취소

1. 리더 훈련(5주) 연기
일시 : 3/7~4/4(매주 토요일 리더모임 시) → 4/11~5/16(매주 토요일 리더모임 시)
2. 예배리더훈련(6주) 연기
일시 : 3/8~4/12(매 주일 16:30) → 4/19~4/24(매 주일 16:30)
3. 예배학교(4주) 연기
일시 : 4/19~5/10(매 주일 16:30) → 5/31~6/21(매 주일 16:30)

행사 연기 및 취소

1. 이단특강
일시 : 2/23(주일), 13:30, 지하 1층 중예배실 → 7/12(주일), 13:30, 지하 1층 중예배실
2. 비전트립 취소
러시아 비전트립(7/16 ~20)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7/21~30)
3. 체육대회
5/17(주일) 청년예배 후 → 일정은 추후 논의

인터뷰 |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_ 염기영 교수 가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교회 창립사상 처음으로, 아니 한국 교회로서도 전례가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지난 2월 23일부터입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이런 낯선 상황에서 한 교인 가족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여쭙어보았습니다.

함줄함울

우선 가족 구성원이 어떤인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염기영 저희 가족은 아빠(전기육), 엄마(염기영), 9세 초등 2학년(전수현)과 6세 유치원생(전재현) 4인 가족입니다. 아빠는 IT 관련 회사원이고 엄마는 전업주부입니다. 45세 동갑 부부입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되셨는지, 혹시 가족마다 때와 이유가 다르다면 어떤 까닭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염기영 아내인 제가 결혼하면서 신랑(전기육)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를 위해서 2010년 10월 결혼하고 신혼집이 있던 잠실 근처에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다가 주님의교회를 아시는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2012년 10월 28일)와 수현(2013년 5월 5일), 재현(2015년 12월 25일) 모두 주님의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절기 때 외에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드리셨다면 가족 구성원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드리셨나요?

염기영 시댁이 모두 크리스천이라 설날, 추석 때에만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건 처음이시지요? 첫날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는지요? 그날 느낌이 어떠셨어요?

염기영 아니요. 예전 메르스가 발병했었던 시기에도 아이가 어려서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첫날(2월 23일) 예배는 집 거실에서 TV에 유튜브를 연결하여 드렸습니다. 온라인예배가 처음이라 조금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맞지 않은 웃을 입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보니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점을 느끼셨는지요? 혹시 좋은 점이 있었다면?

염기영 저희 집은 주일 교회까지 가는데 30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됩니

다. 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시간 절약은 되지만 한 주의 시작과 끝이 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요.

좀 아쉽거나 불편했거나 한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는지요?

염기영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니 집중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입고 하셨어요?

염기영 평상시 교회에 가는 것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현금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염기영 온라인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돌아보는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교회에서 드려야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즉, 예배는 일정한 곳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는지요? 이런 사태 전과 후에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염기영 이번과 같은 특별한 상황(출산 등)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섬기는 교회에서 일정하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시댁, 친정 등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근처의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 온라인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태를 낳게 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바른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염기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주일이라면 장년 예배와 주일학교가 나뉘어져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신 적이 드물었을 텐데 오늘 함께 예배드려보시니 어떠셨는지요?

전기육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많은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점과 아이들이 장년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드릴 때와 달리 새로운 감회가 드셨다면 어떤 점이셨는지요?

전기육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송의 찬양인 "사랑의종소리"의 가사와 같이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께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랑 어린이 예배드리니까 어때요?

전수현 좋았어요. 엄마랑 아빠,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요.

전재현 집에서 예배드려서 좋아요.

교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라 못 만나서 서운하지는 않아요?

전수현 서운하고 슬프긴 했지만,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재현 친구들을 못 만나서 슬퍼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밖에 혹시 교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기영 사회적으로 주일의 교회 예배 관련하여 많은 이슈와 말들이 있는 요즘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하는 것 또한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이 사태를 주님 주신 특별한 시간과 기회로 행복하게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줄함울

목회칼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20평 남짓 되는 공간, 적막한 공기, 그 가운데 40여 명의 장정들이 각을 잡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 적막을 깨고 들어오는 한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는 앉아 있는 이들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오늘 종교 활동 갈 인원은 거수한다!” 나를 포함한 단 3명이 거수를 하고 인원을 파악한 남자는 사라진다. 문이 닫히고 30초쯤 지났을까 사회에서는 들어본 적도, 상상도 못했던 육두문자와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나는 육체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내가 복무했던 부대는 장병들에게 군수품을 지원하는 “보급수송부대”였다. 그중에서도 나는 식료품을 지원하는 1종 창고병이었다. 훈련을 해도, 휴식을 취해도 군인은 먹는다. 따라서 훈련이 거의 없는 주일에도 우리 보수대는 종종 물자 지원 작업을 해야 했다. 이등병인 내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곧 나의 선임(고참)들이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함을 의미했기에 가장 순화된 “미쳤냐?”라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육두문자와 폭언 및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일성수만큼은 목숨을 걸어라”는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던 시절이었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매주 교회에 갔다. 예배를 드리고 부대에 복귀하여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주일마다 있었던 화장실 대청소를 비롯하여 모든 곳은 일을 자원하여 열심히 했다. 그 때문인지 교회 가기 전에만 그런 고난을 당할 뿐, 토요일까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선임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일병이 되었고 주일 성수와 관련된 고난에 익숙해졌을 무렵, 나는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라이벌 관계에 있던 부대와 추구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내가 결승골을 넣게 되었고 대장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회식을 제안하셨다. 이때까지는 나도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회식의 분위기가 무르익

자 대장님이 “오늘 결승골 넣은 이대혁! 내가 술 한 잔 줘야지!”라며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초등학생 때 “내 입에 술을 절대 대지 않겠습니다.”라며 하나님과 어머니 앞에서 서원한 이후로 수학여행, 수능이 끝난 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유혹과 위기를 잘 넘겨왔는데 군대 내에서, 그것도 부대 최고 상급자인 대장이 주는 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너무 두려워서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사이 어느덧 나는 대장 앞에 도달했고, 술을 받았으나 그전까지 살아오면서 술을 권했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신앙을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대장님이 주시는

고 생각해보니 나는 사순절, 그중에서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러자 더이상 억울함과 자괴감보다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비참하셨을지와 꾀박받으면서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던 바울의 언행이 비로소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나를 더이상 아무도 꾀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사단 내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장병들의 심적 안정을 위한 종교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가운데 종교 활동에 관련한 꾀박이 있을 시에 엄벌



해줄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잖아. 군대에서 버텼는데 뭘” 이 말을 되뇌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또한, 군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후배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좌절할 때 군대에서 의 간증을 하면 “위로가 되었다, 도전이 되었다, 고맙다”라는 피드백이 항상 돌아온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고립된 것 같았던 그 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사실 나는 군대에서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두려워 떨면서 타협하고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고,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 예수님을 원망도 했으나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도자기는 불에 구워야 단단해지고, 깃발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 그 위엄과 자태를 드러내듯 하나님의 자녀도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낼수록 더욱 성숙한 삶과 감사,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전역 후 열다섯 번째 사순절을 지키고 있다. 새해의 거룩한 결단과 경건에 대한 다짐이 약해지고 나태해지려는 이때쯤 나는 항상 결코 잊을 수 없는 군대에서의 사건을 상기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동시에 앞으로 목회자로 나아가면서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나의 죄와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면류관을 받는 그 날까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대혁 목사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71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술을 입으로는 받아마실 수 없지만 가슴으로 받겠다며 상의 안으로 술을 부었다. 대장님은 의외로 흡족해 하시며 “이야... 내가 살면서 이렇게 멋있는 놈은 처음 봤다! 오늘 잘했어!”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셨다고 생각했지만 그 은혜는 1시간이 채 못 갔고 회식이 끝나자마자 20명이 넘는 고참들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아프기도 했지만, 억울했고, 자괴감이 들었으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이 무엇보다 힘들었다. 구타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본 나의 얼굴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입안에 가득 차오른 뜨거운 액체를 뱉어보니 생전 보지 못한 양의 피였다.

고개를 들어 다시 거울을 한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다고, 주일성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며 칭찬을 받았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폭언, 욕설, 구타의 이유가 되다니... 자괴감이 들고 억울함이 짙어질 때쯤 그 모든 생각을 종식시킨 단 한 분이 생각났으니 바로 예수님이었다. 왜 예수님이 생각났을까 정신차리

하겠다는 사단장 지침이 내려졌다. 그 결과 나는 우리 부대 내에서 신우회까지 조직하여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머물며 교제를 나누고 저녁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병장이 되었을 때 이등병 때부터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나를 가장 괴롭히던 두 달 고참이 교회에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내가 한두 달 교회에 나가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굳이 욕먹고 맞아가면서도 교회에 가는 것과, 신앙을 이유로 대장의 술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교회에 가면 뭐가 있길래,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자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1년이 넘게 지속하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그는 세례까지 받았다.

전역 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원인을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시간을 포함해 나의 신앙을 공격하고 흔드는 큼지막한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짐승처럼 때리진 않잖아, 적어도 지금은 내 편을 들어주고 함께

알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마땅할 당]

주님의교회 '세움학당[마땅할 당]'은 "마땅히 행할 길" (잠 22:6)을 전수하여 신앙의 주체로서의 가정,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갑니다.

1. 학사일정

1) 기간

상반기 : 4월 18일 ~ 7월 11일

하반기 : 10월 17일 ~ 11월 21일 / 부서 참관 : 11월 29일, 12월 6일(2주)

수료식 : 12월 19일

2) 장소 및 시간

장소 : 주님의교회 시간 : 매주 토요일 저녁 6~8시

2. 커리큘럼

상반기 교사 세움 과정 (기본과정)

	교육내용	강사	비고
4/18	'기독교교육' 바로 알기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4/25	'다음세대 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5/2	'성경' 바로 알기	정영택 목사	증경 총회장, 다세연 대표
5/9	'공과' 바로 알기	이은미 전도사	총회공과집필자, 중앙강사
5/16	'교사의 성경적 자기 관리' 바로 알기	홍정근 목사	강남연동교회 담임, 교목협
5/23	'반 목회' 바로 알기	이진원 목사	총회교육자원부
5/30	'교회교육행정' 바로 알기	조혜민 목사	다음세대전략연구소
6/13	'교수-학습지도' 바로 알기	고원석 교수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6/20	'교사와 상담' 바로 알기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 목회상담학과
6/27	'교사의 지도력' 바로 알기	임경순 목사	청소년숲 총괄
7/4	'교사와 영성' 바로 알기	손경민 목사	유소년숲 총괄
7/11	'부서 운영' 의 실제	각순 담당총괄	종강학기 종강

하반기 교사 영성 과정 (심화과정 - 교사 미션트립 T.M.T./ Teacher mission trip)

	교육내용	강사	비고
10/17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콜링)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10/24	교사!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훈련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10/31	자기를 찾아 떠나는 교사 영성 여행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 목회상담학과
11/7	교사! 사명과 섬김의 사람	박상진 교수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11/14	비전을 찾아 떠나는 교사 영성 여행	홍정근 목사	강남연동교회 담임, 교목협
11/21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사 영성 여행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실습	부서 방문	각 부서	2주 참관 후 종강



고원석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도일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손경민 목사
주님의교회
유소년숲 총괄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상억 교수
장신대
목회상담학과



이은미 전도사
총회공과집필자,
중앙강사



이진원 목사
총회교육자원부



임경순 목사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총괄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정영택 목사
증경 총회장,
다세연 대표



조혜민 목사
다음세대전략
연구소



홍정근 목사
강남연동교회 담임,
교목협

강사진

《 》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가치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만 품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은 다음세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최우선 가치요, 우리네 믿음이 펼쳐질 이 시대의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 믿습니다. 다음세대가 바르게 세워질 때만이 교회의 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과 사회의 미래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놓치면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사회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항구한 믿음과 시대를 향한 소명으로, 이제 우리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을 시작합니다. 주님의교회 세움학당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잠언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길을 전수함으로 신앙의 주체로서의 가정,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학교,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세움학당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마땅한 길을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향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의 교사가 되어 다음세대를 양육한다면, 우리의 다음세대는 결코 "다른 세대"(삿 2:10)가 아닌, 믿음의 다음세대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이 현장에서, 함께 교제하며 세워져 가는 기쁨 나누길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김화수

 알립니다

1. 말씀과 함께하는 40일(전교인 성경통독)

기간 : 사순절(2/26~4/11, 주일을 뺀 40일)

2. 온라인 양육클래스 수강신청 및 개강 안내

강의는 인터넷(PC, 핸드폰)으로 수강하시며, 1인당 3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강좌 커리큘럼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좌 개강은 3/22(주일)에 합니다.

▶ 온라인 개설 강좌 안내

- ①강좌명 : 중보기도 (이은석 목사 010.4417.9779)
- ②강좌명 : 사도행전 I (황바울 목사 010.3657.0421)
- ③강좌명 : 신앙생활의 ABC (박주영 목사 010.3347.0390)
- ④강좌명 : 고단한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 ⑤강좌명 : 성경 속 기도이야기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 ⑥강좌명 :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 ⑦강좌명 : 신구약 성경개관 (정창화 목사, 허준 목사,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 ⑧강좌명 : New City Catechism(이진희 목사, 정지인 전도사 010.8882.5503)

▶ 수강신청 접수 및 방법 안내

접수 : 3/15(주일)~28(토)

신청 방법 : 해당 강좌 담당 목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

문의 : 방순희 권사(010.3622.1368)